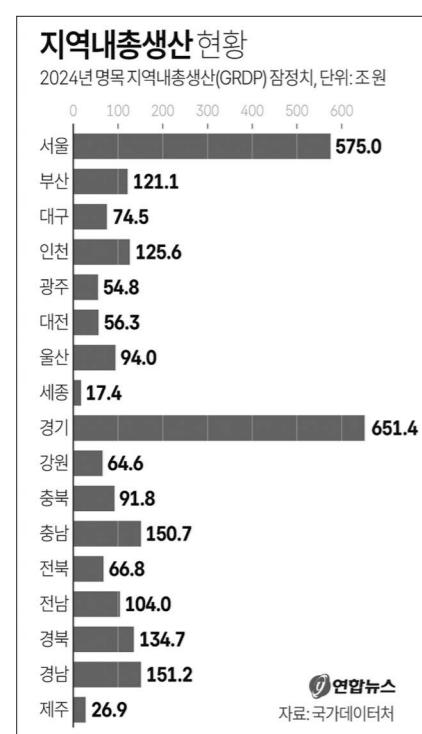


전남 경제규모 개선…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4위’ 경쟁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지역소득 통계

5918만원 5.9% 증가

광주 55조·전남 104조

전년비 3.4%·5.2% ↑

전국 증가율은 밀돌아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규모가 각각 55조 원과 104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밀돌았다. 다만 전남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5.9% 늘면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

한 ‘2024년 지역소득 통계(GDP·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조561조원으로 전년보다 149조원(6.2%)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은 55조원과 104조원으로 각각 3.4%,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

증은 전년과 같은 전국의 2.1%, 4.1%를 유지했다.

경기도가 651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서울이 575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까지 수도권이 135조원으로 전국의 52.8%

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3%p 늘었다.

경남은 139조3000억원에서 151조2000

억원으로 12.0% 급증하면서 3위로 뛰어

올랐다.

2017년부터 3위를 지켰던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41조8000억원에서 150조7000억원으로 8.9% 늘었다.

이어 경북(135조원), 인천(126조원), 부산(121조원), 전남(104조원), 울산(94조원), 충북(92조원), 대구(75조원), 전북(67조원), 강원(65조원), 대전(56조원), 광주(55조원), 제주(27조원), 세종(17조원) 순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이 4948만 원으로 전년보다 284만원(6.1%↑) 증가

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5918만원(5.9%↑)으로 울산, 충남, 서울

등과 함께 전국 평균을 상회한 반면 광주(3768만원)를 비롯 대구, 부산 등은 평균

을 밀었으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남지역의 성장 배경

으로 제조업과 운수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꼽았다. 전년도 부진했던 석유화학 산업의 일부 회복과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개선, 수출 증가에 힘입은 수상운송업 실적 확대가 지역 총생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도내 소비와 생활로 이어지도록 경제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출생 기본소득과 만원주택 등 인구 유

입·정책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공기관과 공기업 유치, 항로기업 성장 지원을 병행한 결과, 전남에서 외부로 유출되던 소득 규모는 2022년 32조원에서

2024년 12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지난해 1440조원으로 전년보다 76조원

(5.5%) 늘었다. 경기가 387조원으로 가

장 많았고 서울(303조원)과 부산(85조원)이 뒤를 이었다.

1인당 기준으로는 서울이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3222만원으로 전년(3038만원)보다 6.6% 가량 증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소득 지표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울산(3112만원), 대전(2875만원), 세종(2838만원), 경기(2791만원), 광주(2778만원) 순이었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 또는 가계 복사 비영리단체가 일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지역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K-전남 김, 대미 수출 확대 ‘청신호’

조미김 미국 상호관세 면제…가격 경쟁력 강화 전망

조미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됨에 따라 전남도의 대미 김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은 11월 14일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식품에 대해 상호관세(15%)를 예외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조미김이 해당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전남 조미김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남 김 총수출액은 3억6441

조자는 조미김 중심의 수출 구조와 맞물려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형 유통망을 통한 주문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안 소재 수출업체 신안안천사김은 최근 미국 코스트코의 조미김 주문량 증가에 맞춰 적기 생산과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조미김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조미김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지방물가 우수관리 ‘최우수 지자체’

행안부,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 결과 발표…재정 인센티브

전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공공요금 동결과 체계적 물가 관리 성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순천·고흥·해남·영광 등 도내 시·군도 옛따라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옮리며 전남의 물가 안정 전략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았다. 도 단위에서는 전남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인정관리, 척화기기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해 이뤄졌다. 특히 바기지금 예금 절감과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항목의 배점이 확대됐다.

전남도는 소관 지방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목표 관리제’를 통

해 요금 항목별·시군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요금 변동 추이와 현실화율을 종합 분석해 인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 협의체 운영과 실적 모니터링, 우수 시·군 포상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한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순천시·고흥군·해남군·영광군이 시·군 부문 ‘가’등급에 선정됐다. 공공요금 관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 축제·관광 성수기 바

기자금 예방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를 지자체는 전국 시·군 가운데 상위 5%에 포함됐다.

광주는 이번 평가에서 기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서구와 북구만 ‘나’ 등급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진도군 등 10곳이 ‘나’ 등급을 받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연말 ‘산타 동행’

김성은 감독·안산 선수 1000만원 기부…방한용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텐텐양궁단 김성은 감독과 안산 선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방한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험페이지에 공

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가맹점 대표

자들에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을 제외하고 기업이 청단한 최초의 양궁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창단 이후 명장 김성은 감독

의 세심한 지도 아래 최미선, 안산, 최예진, 곽진영, 김정윤 선수 등이 활약하며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창단 이래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입증하는 한편, 기부활동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스포츠 저변 확

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

4세대는 20%대 인상

내년 실손의료보험 평균 약 7.8% 오른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을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을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뛰어오른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

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